



2012 세계엑스포 '감동의 실사'



'7人の実事館'市民들과 신나는 춤판

외대생 70명 각국 전통 공연

"여수의 뜨거운 열기 놀랍다"

'실사단을 감동시켜라!'

11일 오후 3시30분 여수시 학동 시청 앞 광장, 인도를 가득 메운 수 천명의 인파 사이로 경쾌한 러시아 민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곧 이어 러시아 전통 의상인 루바슈카(남성용)와 사라판(여성용)을 입은 한국외국어대학 학생들이 러시아 전통 춤인 '코사크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10여m 떨어진 또 다른 거리에서는 러마니아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남·녀간 사랑을 노래한 러마니아 민요 'Dragossea din xei', 'Acolo-n inina ta'를 합창했다.

카르맹 실랑 단장을 비롯 세계박람회 실사단 7명도 흥에 겨운 듯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실사단원들은 각자 자신의 고국과 고향의 민요가 흘러 나오는 곳을 찾아가 공연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어울렸다. 지켜보던 시민들도 한데 어우러졌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이었다.

땀으로 등이 흠뻑 젖은 실사단은 10여분 후 시민들과 거리 공연자들을 추고 있다.

구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어 댔다.

한국외국어대학 학생·교수 등 70명은 이날 서울서 여수까지 내려와 '감동 공연'을 펼쳤다.

루마니아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춘 이은희(22·루마니아학과 2년)씨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함께 춤추고 노래한

루마니아 출신 실사단원과 여수시민들의 열정이 박람회 유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덴마크가 고향인 실사단원 스틴 크리스텐센씨는 "열렬히 환영해 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길거리 퍼포먼스는 정말 멋진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여수=이종행 기자 golee@



한국외국어대학 학생들이 러시아 출신 실사단원을 감동시키기 위해 전통 의상인 '루바슈카'와 '사라판'을 입고 '코사크 댄스'를 추고 있다.

BIE사무총장은 기념하는 '로세르 탈레스거리', 굿모닝증권에서 대우자동차영업소는 집행위원장에게 헌정된 '까르맹 실랑거리'라고 명명.

실사단은 11일 오후 4시50분부터 30여 분간 자신의 이름이 붙은 거리를 걸었는데, 거리 명은 이날 행사를 위해 여수시가 임시로 지은 것.

/여수=홍행기·이종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이모저모 환영인파 영남주민 대거 참여 '동서 화합의 장'

○...여수박람회 실사단 환영인파에 영남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이번 현지실사가 동서화합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눈길.

이인기 국회 익스포유치특위 위원장이 여수시청을 방문한 데 이어 경북 청곡·고성·봉화 군의원과 주

민 30여 명이 도로변에서 시민들과 손을 맞잡고 BIE실사단을 환영.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지역 새마을지도자회 150여 명과 음식 업협회 100여 명도 시청 주변에서 박람회 상징 깃발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실사단을 맞이하는 등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구분을 떠나 한민족으로서의 애정을 과시.

실사단은 11일 오후 4시50분부터 30여 분간 자신의 이름이 붙은 거리를 걸었는데, 거리 명은 이날 행사를 위해 여수시가 임시로 지은 것.

/여수=홍행기·이종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감원·국세청·은행직원 사칭



전화 금융사기 피해 확산

경찰 3명 검거

금감원과 국세청, 은행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11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수 천만원을 받아 쟁기려던 정모(32·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장모(여·40·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누군가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2천만원이 연체됐다"면서 "우선 연체 금액을 정리하고 난 뒤 범인을 불잡자"고 속여 2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부산지역 사람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다른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 경찰도 이날 카드 보안을 빙

자해 수 백만원의 현금을 받아 쟁기 위모(39·경기도 안산)씨 등 중국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위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2시30분께 이모(여·30·합평군 합평읍)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디지털카메라 구입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속여 이씨의 통장에서 268만 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거래 은행과 계좌 번호를 물어본 뒤 "금융감독원에 넘겨 지급정지 및 바코드 변경 신청을 해주겠다"며 가까운 은행으로 가도록 한 후 계좌 이체를 받는 수법으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에서도 금융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자가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통장 카드에 대한 보안을 해야겠다"고 속인 뒤 현금 4천만원을 인출해 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풍경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일자]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세무공무원 손기락 하나는 '억원'

○...세무조사 면제 청탁을 받고 뇌물로 1천만 원을 의미하는 손기락 한 개를 들어보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착각해 1억원을 건넸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 1억 원에 대한 짓값을 치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먼저 요구해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를 가져려는 의사가 있었고, 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앞서 1심 재판부는 1억 원 모두를 뇌물로 보고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요구했던 1천만 원만을 뇌물로 본데다 돈을 돌려준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춰 선고. /연합뉴스

"소액 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광주지법 판결

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 건물의 구조가 달라지고 임차인도 증가한 경우 강제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이 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는 단층 주택이 허물어지고 이 자리에 오피스텔 건물을 세워자 임차인이 들어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이런 경우까지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송혜영판사는 11일 광주 A오피스텔의 근저당권자인 광주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된 A 오피스텔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이 오피스텔 임차인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일부 임차인의 부동산 강제 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지

33)가 청소를 하고 있던 서구 환경미화원 노모(46)씨를 치어 중상 입혔다.

11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가 뒷길에서 광주79가 78XX호 무쏘 승용차(운전자 Y모·

새벽 음주차량에 치여

40대 환경미화원 중상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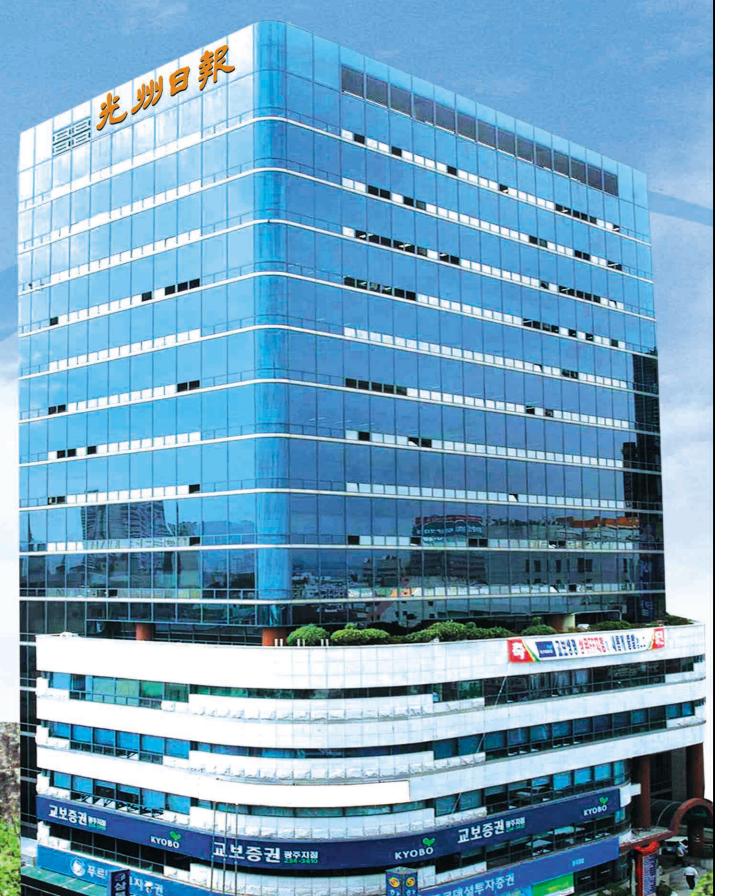
33)가 청소를 하고 있던 서구 환경미화원 노모(46)씨를 치어 중상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이날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회장 허 정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18-9 의사회관 4층
TEL.(062)529-2101

전라남도 의사회

회장 김 영 식 외 회원일동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847-2 목포빌딩 4층
TEL.(061)284-2421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김 낙 현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37-98
TEL.(062)675-6735~6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회장 문 석 재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0-96 (3층)
TEL.(062)223-9481

광주광역시 약사회

회장 김 일 룡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24-3
TEL.(062)365-1621